



# 바이든, 18일 지상전준비 이스라엘 방문…“중대시점에 연대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고 있다. 두 정상의 회담은 네타냐후 총리 재집권 9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백악관이 아닌 뉴욕에서 진행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하 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보복전에 나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이스라엘을 나흘만에 재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뒤 기자들

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중 차대한 시점에 이곳에 올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재확인할 것”

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하마스와 다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국민을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봉쇄로 인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전쟁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美 국무 “바이든, 이스라엘의 국민 지킬 권리·의무 분명히 밝힐 것”**

**백악관 “이스라엘의 작전 브리핑 청취 기대…인도주의 문제도 논의”**

**바이든, 팔 자치정부 수반 등 회동…확전 자체·향후 해법 논의할듯**

받을 것이며, 가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 기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전시 내각과 만날 것이라고 확인하고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그들의 전략과 작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가

자 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것”이라며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 문제도 포함되며, 특히 현재 가자지구에 머물고 있는 수백명의 미국인(대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어 같

은 날 요르단 암만을 방문, 암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비롯해 암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마무드 아巴斯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 확전 방지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을 분리해 정치적으로 하마스를 축출하는 방안과 팔레스타인 독립 정부 건설을 의미하는 ‘2국가 해결 방안’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는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받아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이날 콜로라

도를 방문해 풍력 발전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책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불과 몇시간 남겨놓지 않고 일정을 전면 연기해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은 뒷받침했다.

미국 대통령이 당일 외부 행사를 취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머물며 안보팀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열흘째 가자지구에 무더기 공습을 퍼부으며 반격에 나섰고, 36만명에 소집령을 발령해 병력을 가지지구 인근에 집결시키며 지상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성사됐다.

/ 강현호 기자

## 중앙지검장 “대선개입의혹 보도’ 심각하게 보고 있어…빈틈없이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인적 책임 범위 살필 것”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혹 전반을 빈틈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수사 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가운데 조작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느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대선 조작) 보도에 대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보좌관이 경천동지 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



을 것”이라며 “중앙지검이 규명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에 “증거와 범죄로 수사해 사건을 판단하겠다”며 “형사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선개입여론조사작사건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을 꾸린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 보좌관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송 지검장은 앞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강남 3인조 살인사건, 신림동 흉기난동, 성폭행 사건 등 강력 성범죄 사건과 강남 학원이 마약음료 등 조직 범죄와 기업범죄 사건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 野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지역의사제와 동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들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지호 기자

1988년 존재감을 알린 대한민국  
2002년 저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2030 부산 엑스포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의 힘은 더 위대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SK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 尹 “우리 방위산업 새 역사 쓰는 중”…57개국에 ‘K-방산’ 직접홍보

###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ADEX 참석…KF-21·K9·K2 등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ADEX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다. 올해 14회째로 참가업체, 전시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거론했다.

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상이 된 전투형 보병장갑차(IFV) 레드 백,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 군 고위 관계자,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한 만큼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이

제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 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면서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가겠다”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DEX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 하고 있다”며 “괴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국 전략 무기도 전시됐다.

/ 송원기 기자

기운데 하나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정한 GS25 역시 올해 헬러윈 마케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GS25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헬러윈 관련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업계 또한 ‘조용한 헬러윈’을 보낼 계획이다. 예년의 경우 업체 대부분이 헬러윈 수요를 겨냥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이를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커머스업계는 다음 달 예정된 연중 최대 쇼핑 축제와 관련한 마케팅도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봐가며 마케팅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도 “예년처럼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헬러윈 행사를 진행해온 롯데월드와 에버랜드는 올해 헬러윈 관련 축제나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 이준영 기자

사를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형마트들도 관련 상품을 진열해 두되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마케팅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년에는 행사 매대를 별도로 꾸미고 기획전과 할인 행사도 진행했지만, 올해 취급 품목을 대폭 줄였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과 동시에 헬러윈 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잠실 롯데월드몰에 마련하기로 했던 팝업 매장과 퍼레이드를 모두 취소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점포별 행사를 취소하고 장식물을 철거했다.

대형마트도 행사 매대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주간 선포’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KT는 알뜰폰 고객서비스 채널에서 헬러윈 이벤트를 열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백화점들은 예년에는 매장을 헬러윈 분위기로 꾸미고 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에 퍼레이드도 열었지만, 올해는 관련 행

사를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형마트들도 관련 상품을 진열해 두되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마케팅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년에는 행사 매대를 별도로 꾸미고 기획전과 할인 행사도 진행했지만, 올해 취급 품목을 대폭 줄였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과 동시에 헬러윈 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잠실 롯데월드몰에 마련하기로 했던 팝업 매장과 퍼레이드를 모두 취소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점포별 행사를 취소하고 장식물을 철거했다.

대형마트도 행사 매대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파업 7일째인 서울대학교 병원

###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일주일째

#### 장기화에 환자 불편 계속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이 7일째를 맞으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노조원 약 1천명이 번갈아 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는 ▲ 의료공공성 강화와 영리화 금지 ▲ 인력 충원 ▲ 사립대병원 인상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대책 ▲ 직무 성과급제 도입 금지 합의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와 병원은 매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병원 측과 실무협상과 정기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수용할만한 양이 나오지 않아 난관”이라며 “특히 응급실에서는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도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가 전혀 받

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성명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늘어나는 중증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며,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15~16시간으로 배로 늘었다”며 “이에 올해 응급실 인력을 10명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단순 통계자료와 경영 논리를 제시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환자 불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채혈실 앞 대기실은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로 다소 붐비는 모습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환자들의 검진 대기시간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직원 등 가용 인력을 파업으로 인력이 빠진 배식이나 환자 이송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희진 기자

### 서울 난지한강공원에 ‘세븐틴숲’ 등 스타숲 7개 추가 조성

서울시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에 아이돌그룹 세븐틴, 배우 박서함을 비롯해 스타의 이름을 딴 스타숲 7개가 추가로 조성된다며 17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NCT 도영진 등 3개가 생긴 데 이어 추가로 조성되는 숲을 합하면 난지한강공원 내 스타숲은 총 10개, 나무는 5천233그루가 된다.

스타숲은 스타를 아끼는 마음으로 편

이 수목을 기부하고 스타의 이름을 붙여 조성하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한강 전역에 흩어져 편성된 스타숲을 한곳에 큰 규모로 만들어 편의를 높이고 관광명소로 키우고자 노력해온 바 있다. 특히 난지한강공원은 1만m<sup>2</sup> 규모의 부지를 활용해 식재 설계, 나무 식재, 물주기·풀베기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 박정민 기자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테마파크·호텔업계가 모두 올해 헬러윈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다수 기업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주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헬러윈을 상술에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KT는 알뜰폰 고객서비스 채널에서 헬러윈 이벤트를 열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백화점들은 예년에는 매장을 헬러윈 분위기로 꾸미고 쇼핑몰이나 아웃렛 등에 퍼레이드도 열었지만, 올해는 관련 행

사를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형마트들도 관련 상품을 진열해 두되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마케팅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년에는 행사 매대를 별도로 꾸미고 기획전과 할인 행사도 진행했지만, 올해 취급 품목을 대폭 줄였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과 동시에 헬러윈 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잠실 롯데월드몰에 마련하기로 했던 팝업 매장과 퍼레이드를 모두 취소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점포별 행사를 취소하고 장식물을 철거했다.

대형마트도 행사 매대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사를 일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형마트들도 관련 상품을 진열해 두되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마케팅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년에는 행사 매대를 별도로 꾸미고 기획전과 할인 행사도 진행했지만, 올해 취급 품목을 대폭 줄였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과 동시에 헬러윈 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잠실 롯데월드몰에 마련하기로 했던 팝업 매장과 퍼레이드를 모두 취소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점포별 행사를 취소하고 장식물을 철거했다.

대형마트도 행사 매대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7대 행사

를 철수하고 기획전을 중단했다. 편의점업계도 마찬가지다. CU는 과거 해마다 헬러윈을 앞두고 진행하던 관련 상품 출시나 모바일 앱을 통한 이벤트 계획을 이번에는 세우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헬러윈을

# 文 전 대통령, 조국 2심에 '직권남용 무죄 취지' 의견서 제출

前특감반원 “한동수 통해 감찰 보복”…조국 “접촉 안해” 설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봄아 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



2심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나,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

고 날인한 것”이라고 묻자 변호인은 “직

접 작성해서서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

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

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찰 수사관인 이씨는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 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대검 감찰을 받은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감찰 무마에 관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이씨는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

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로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 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 수석님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이씨를 신문하며 감찰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14일로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긴 시간의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지금도 감찰이 저와 관련이 있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수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 하다. / 김관수 기자



유엔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

북 “핵보유국 지위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는다”…유엔서 주장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 안전 담당)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현재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

고 말했다. 이어 김 서기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각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또한 김 서기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GC) 개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북한은 수십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고, 전례 없는 도발 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참사관은 북한이 최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한국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핵무기를 앞세워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대표부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은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 핵무기를 완전하고 겸증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손주현 기자

## 이복현 “부동산 PF, 국민에 책임전가는 용납 안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 상승에 배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시장 수급과 관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그런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강동현 기자

앞서 한국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 이한준 LH 사장 “검단 아파트 입주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국회 국토위 국감…“GS건설에 구상권 청구 계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지하 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지체 보상금과 관련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 LH 역시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된 데 따라 LH는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 사고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낸 적이 없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강동호 기자

## 11월 16일 수능일 관공서 출근 시간 늦춰져…수도권 지하철 증편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아침 등굣길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능 당일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또 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

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 기관의 비상 수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해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로 이동한 수험생은 차에서 내려 걸어야 한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된다. 포 사격·전차 이동 등 군사 훈련도 잠시 중단된다.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도에서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을 마련한다.

17개 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수능 당일 지진에 대비해 지진 상황과 지진 발생 때 정보 전달 체계도 점검한다.

문답지 보안을 위해서는 경찰청과 교육청이 철저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부에서도 모든 시험자구에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올해 수능은 다음 달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자구 1천 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 백서연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나님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걸음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농촌 독거 어르신 일봉서비스  
NHNonghyup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NH농협은행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 윤재옥 “의사 수 확대 불가피…정부-의료계, 대화로 해결하길”

“당정, 의료수가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논의 준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무려 19년간 끊어 있었다.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뻥뻥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



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윤재옥 원내대표

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언급 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를 뇌살리는 것, 소

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 홍익표 “60조 세수부족 사태는 경제실패…최대 위기는尹정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장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중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대금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진 이번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이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다시는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이석준 기자

## 野 “국정원, 보안점검 구실로 선관위 길들이기…선거개입 망령”

### “국정원 관계자들 여러 기관 출입한다는 제보…고발 등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 및 발표 시점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깔렸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은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킹으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며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이나 선관위는 발표 내용에 동의하기는커녕 (국정원과)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어제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3개 기관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으로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국정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 가능하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점검 방식이 내부 보안 시스템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이뤄진 ‘가상 해킹’이었다며 국정원의 발표 내용에 반발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의 독단적 발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위험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정원이 보안점검이라는 구실을 통해 선관위 길들이기를 시작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그런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8대 대선 댓글 조작, 15대 대선 총풍사건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저질렀던 선거 개입의 망령이 국정원에 다시 드리워진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단체로부터 국정원 관계자들이 여러 기관을 출입하고 여러 사람을 만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그런 행태가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 박현숙 기자

## 유승민 “12월께 與 떠날지 남을지 선택…신당은 최후 수단”

### ‘김기현 2기’ 평가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 못 치러…尹정권 레임덕 시작”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12월께 국민의 힘 탈당 여부를 선택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까지 당의 변화와 혼선을 위해서 내 역할, 목소리를 다 낼 것”이라며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몸 던지는 것, 늘 기꺼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탈당은 물론 신당 창당까



지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나는 국민의힘이 절대 국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이 당이 더 보수화하고 더 국우화하는 것 같다”면서 “나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 민성호 기자

도 했다. 아울러 “12월에 가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도 ‘이 대로는 안 된다’는 걸 결국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본다”며 김 대표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김기현 2기’ 인선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공천하는 사무총장, 부총장도 100% 윤 대통령 사람들이고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그렇다. 그러니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정미, 사퇴론에 “혁신재창당 매듭지을 것…선거연대 열어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불거진 사퇴 요구에도 당분간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1차 혁신재창당 과정까지는 뭔가 좀 매듭을 지어놓고 총선 준비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요구, 의견들을 청취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사퇴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1.83%를 득표했다. 이 대표는 혁신재창당에 대해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치 지향을 다 빼고 일단 제3지대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모여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당을 만들어보자, 이것은 조금 어렵다”며 “시대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뭘 하려고 하는 당인지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총선 국면 안에서는 소위 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폭을 열어놓



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노동과 녹색과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풀뿌리 정치나, 이런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과 한 당으로 하나의 힘을 합쳐나갈 것”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선 결과에 대해 “선거 과정 자체가 소위 ‘민주당을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쏠림현상이 너무나 심했었다”면서 “(정의당의) 조직력이 굉장히 취약했던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 김유정 기자



## 모빌리티가 육체라면 소프트웨어는 정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안한다…인선 지연될 듯

대법관 회의서 잠정결론…“전원합의체 심리, 법관 정기인사는 진행”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청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으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체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 불편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나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임명 제청권까지 대행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일에 맞춰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겸종,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안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 역할은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맡는다.

김선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퇴임했다. 이에 안 권한대행이 이튿날부터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이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전 후보자는 17일부터 서울고법으로 발령돼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김민재 기자



‘또래 살인’ 정유정 “같이 죽고 싶어서, 환생이 있다고 생각”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와 같이 죽고 싶었고 환생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정유정 본인과 정유정의 조부에 대해 심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울하게 만든 사정과 피해자는 무관한데 왜 피해자 살해했느냐”고 질문했다.

정유정은 “같이 죽고 싶어서 그랬다. 환생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정이 극단적 선택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시신을 처리할 캐리어를 준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유정의 조부는 중학생이던 정유정이 고교생이 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찰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 (살인을) 미연에 방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잠을 못 잔다. 피해자 가족을 찾을 길이 없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상대가 거부해 사죄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3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할 예정이다. / 박지원 기자

## 검찰,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 이상직 전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 할당제’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행위”라며 “이상직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 오창준 기자

## “딸 갖고 싶어…” 신생아 5명

### 돈 주고 사서 학대한 부부 기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검사 박은혜)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47)씨와 B(45)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임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은 뒤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 흥명섭 기자

# 모두가 하나되어 산업재해 철벽방어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SK telecom

T roaming

#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 강원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발표…“전문인력 1만명 양성”

## 테스트베드·부지 조성 등 4개 전략 제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실현

강원도는 16일 도내 반도체 1호 투자유치 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 원주 문막공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태 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문규 한림대 명예교수,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한국 총괄대표 등이 참석해 투자 계획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 조성, 기업 유치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는 반도체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특성화고 반도체과 신설,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반도체 교육센터 2026년 준공을 추진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발표하는 김진태 도지사

하기로 했다. 또 도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테스트

반도체 기업을 위한 부지 조성은 3단계로 진행한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론 일반·국가 산단을 조속히 완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소를 우선 유치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정부 정책을 활용해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도는 반도체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특성화고 반도체과 신설,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반도체 교육센터 2026년 준공을 추진

## SK텔레콤, 메타버스 ‘이프랜드’에 유료 체제 도입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의 아이템 구매 등을 유료화하고 신규 프리미엄 콘텐츠 1만6천여 종을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프랜드에 도입되는 유료 재화 ‘스톤’은 소장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사거나 호스트를 후원할 때 쓸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로 살 수 있다.

무료 재화 ‘포인트’는 기존과 같이 출석, 미션 수행, 이벤트 참여에 활용된다.

회사는 유료 시스템 도입으로 이프랜드 인플루언서들이 개인 공간 서비스 ‘이프롬’과 이프스퀘어에서 ‘스톤’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캠핑, 파티 등 테마 아이템과 유명 아이돌의 안무나 소셜미디어(SNS) 체인저나 팀 등을 활용한 꾸미기 아이템을 이프랜드에 추가했다.

세븐일레븐, 페가카피 등 개별 브랜드 특화 아이템도 적용했으며, 대체불가토큰



(NFT) 마켓플레이스 ‘탭포트’를 이프랜드에 연동해 관련 아이템도 도입했다.

SK텔레콤은 신규 서비스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이프랜드 인플루언서들이 참여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정부에 요청,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유치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도내 댐과 동해안권 발전 전력을 활용해 공급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자 투자 확대 여지가 있는 전국 1천46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어떤 산업이든 씨앗을 심고, 나무를 기르는 데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다양한 기업이 공존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반도체 꽃을 화려하게 피워보겠다”고 말했다. / 남현수 기자



## LH, 16일부터 ‘뉴홈’ 사전청약 접수 남양주·하남 등 3천35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뉴홈’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현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은 유형에 따라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 3가지로 나뉘며 이번 청약에선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선택형으로는 ▲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 남양주진접2 287호 ▲ 군포대야미 346호 등 918호, 나눔형으로는 ▲ 하남교산 452호 ▲ 안산장상 440호 등 892호가 각각 공급된다. 일반형으로는 ▲ 인천계양 614호 ▲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 남양주진접2 381호 등 1천225호가 공급된다. 총 3천35호 규모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는 4억~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 60㎡ 이하의 추정 임대료는 50만~60만 원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 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된다.

LH는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형별로 들여다보면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

후 LH에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

택이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

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나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약 접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야 하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홈 홈페이지(뉴홈.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로

문의하면 된다.

/ 민성철 기자



##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기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합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 미만 :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다이렉트 계좌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하청 배달 기사 ‘죽음’ 두고 쿠팡 측-택배노조 갈등 고조

### 쿠팡CLS “택배노조가 사망사건 정치적 이용…법적조치”

### 택배노조 “심장비대는 과로사 증상…쿠팡 개선 의지 없어”

최근 경기 군포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의 사망 사건을 두고 택배노조와 쿠팡 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S)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사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CLSS는 이날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경찰의 내사 종결 예정 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택배노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의의적 허위 사실 주장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LSS와 위탁 계약한 배송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께 군포시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

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

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

을 확인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노조와 정치권에

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심장 비대는 전형적인 과로사, 뇌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며 “고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심야 배송임에도 55시간 간인 점에서 볼 때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LSS가 고인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을 55시간이라 했다가 52시간으로

수정했지만, 그래도 심야노동 할증(30%)

을 적용하면 67.6시간이라 과로가 명백하

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쿠팡 택배를 배송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쿠팡의 행태는 간접고용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진짜 사장의 의무는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원청 갑질”이라며 “쿠팡은 반성이나 시스템 개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 오윤성 기자

## ‘PF보증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 보증심사 속도 단축한다



‘PF보증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  
보증심사 속도 단축한다

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HUG는 상담창구를 통해 주택사업자가 PF 보증을 쉽게 받도록 지원한다.

그간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온 PF 보증 심사는 본사 중심으로 전환해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또 HUG가 보유한 자체 고객 데이터, 사전청약 택지정보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수요를 발굴해 보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PF보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접 찾아가 지원 상담을 한다.

HUG는 원스톱 PF 보증 심사를 시범 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 주택 사업장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본사 심사 10영업일 만에 보증 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꽈도경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6일부터 PF(부동산 프로젝트파크) 지원을 위한 원스톱 특별 상담창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푸른 바다가 활짝 웃는 기술

LG의 클린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해양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다양한 기술로  
내일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갑니다

#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앞두고 서비스 제공기관 2곳 선정

12월부터 외국인 100명, 서울시 맞벌이 가구 등에 배치



서울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사·제공할 민간업체 2곳을 선정했다.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기관으로

로 험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를 선정해 공고했다. 이들 기관은 비전문 외국인 체류 자격인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고용한 후 가정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험스토리생활에 70명, 휴브리스에 30명이 배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에 사업 준비를 위한 초기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면 오는 12월 서울시에서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우선 이용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관들은 송출국가에서 1차 선발한 인력을 대상으로 면접과 겨증 작업 등을 거쳐 요건을 갖춘 인력을 선발해 고용

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노동부와 서울시, 인증기관이 협의해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선정한 후 외국인력과 매칭한다.

이용 가격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결정하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천원과 높고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천62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업력과 전문성, 관리 능력 등을 엄격히 고려해 기관을 선정했다"며 "아이와 맞벌이 부부 등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지혜 기자



## "경남교육청 스마트 PC 입찰조건 의혹"

### 도교육청, 의혹 '일축'

경남지역 교육단체가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한 '스마트 태블릿 PC(이하 스마트 PC) 보급사업'과 관련해 입찰 조건과 선정 과정 등에 의혹을 제기하자 도교육청이 즉각 반박했다.

도내 일부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 등

으로 구성된 '경남 미래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PC 입찰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도교육청이 제시한 조건 등

이 맞지 않아 입찰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때문에 국내업체가 아닌) 대만에 본사를 둔 아수스라는 업체가 선정돼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찰 전부터 미리 물량이 준비된 업체가 아니라면 2021년 12월 23일 계약해 이듬해 2월과 8월에

/ 고현주 기자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에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 운영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기관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정·중원·분당구에 각각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분당구가 먼저 이달 6일 220명의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분당구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민과 자율방재단, 환경미화원, 공동구 유지관리업체 직원, 구청 소속 도로관리원·준설원·교량관리원·녹지관리원·주차관리원 등으로 꾸려졌다.

감시단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분당지역 교량(181개), 도로(10여곳), 지하차도(21개), 지하보도(27개), 맨홀(1만 6천294개), 용벽(5개), 수목(3만1천826그루), 벽돌받이(3만3천 556개) 등의 기반 시설 상태를 관찰한다.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단톡방에 사진과 위치, 발견한 위험 사항 등을 올려 분당구청 관계부서와 내용을 공유한다.

중원구와 수정구 기반 시설 안전감시단(각각 100명)은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발대식을 한다.

/ 강기영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병원선, 전남서 취항…77개 섬주민 진료

### 첨단 의료 장비,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갖춰



첨단 의료 장비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전남 511호 병원선'이 전남 여수엑스포항에서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항에 나섰다.

전남 511호 병원선은 23년 선령의 노후 기존 병원선을 대체한 것으로, 섬 운항 안전성과 섬 주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132억원(국비 86억원·도비 46억원)을 들여 새롭게 건조됐다.

선박 규모는 기존 병원선(128t)보다 3

배 커진 390t으로 국내 병원선 가운데 가장 크다. 전장 49m, 폭 9m, 깊이 3.8m로 최대 승선 인원은 48명, 최대 항속거리는 1천40km다.

최대 속력은 18노트(33km)로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하다. 특히 연안 섬 지역의 낮은 수심을 고려해 워터제트 추진기를 장착하고, 환경친화적 전기복합추진 장비도 탑재했다.

고속 운항 시 디젤기관과 저속 균거리

운항 시 전기모터를 사용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실현 효과도 기대된다.

병원선 시설은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실과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약제실, 진료 대기실 등 진료 및 편의 공간을 확대했다.

노령인구가 많은 섬 주민의 만성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고 한방진료실 치료 장비도 대폭 보강했다.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기, 진단용 방사선 장비, 생화학 분석기, 물리치료기 등 최신 검사장비도 갖췄다.

의료인력 8명 선박 운항 인력 9명 등 총 17명으로, 연간 170일 이상 남해안 5개 시군 77개 섬을 돌며 섬 주민의 질병 예방·건강검진·진료를 한다. 전남도는 현재 남해안권(전남 511호), 서해안권(전남 512호) 병원선 2척을 운영, 11개 시군 167개 약 9천여 섬 주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지난해 2만5천여 섬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했다.

/ 안현정 기자

## BNK부산은행, 센텀시티역 미래형 점포 '디지털플레이스' 선봬

BNK부산은행은 16일 도시철도 이용 고객과 시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에 미래형 점포 '디지털플레이스'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레이스' 센텀시티역점은 디지털기기 기반 점포로, 고객이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데스크와 고객이 직접 조작하는 스마트텔러머신(STM) 등이 설치됐다.

디지털데스크는 전문 상담 직원과 화상으로 소통하는 창구로 예금·적금·주택청약, 대출 상담 및 신청, 외환, 각종 카드 발급 등 일반 영업점 수준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디지털데스크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안내 직원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강석래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은 "디지털플레이스는 대면과 비대면이 가능한 미래형 점포로 금융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세상을 바꾸는 금융

"희망부자들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부자이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 역시  
희망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꿀벌을 지키면서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책을 통해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런 희망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희망부자들을 응원합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 첫번째 이야기 ☺



KB금융그룹은 밀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

## 김관영 전북지사 “잘못된 예산심의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잼버리 사태 이후로 새만금 예산만 삭감…원상회복해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잘못된 예산심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잼버리 끝나고 나서 갑자기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폭기로 인한 전북인의 절망감과 비통함, 분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대단히 잘못된 예산심의권 남용에 대해 우리 기재위원들이 꼭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부처에서 반영한 예산이 8월 4일까지도 다 존속돼 있다가 잼버리 사태 이후로 기재부에서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최근 1년간 새만금에 7조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에 새만금 예산 복원 촉구하는 전북지사

(새만금 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됐기 때문에 기업인 얼굴 보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제대로 된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 입장에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새만금 예산을 꼭 좀 정상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도 잊지 않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복원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MSUNG**

#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안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 황선우 2관왕 오르며 MVP 향해 순항...역도 신재경 3연속 3관왕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강원도청)가 제104회 전남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수집하며 3년 연속 최우수선수상(MVP) 수상을 향해 순항했다.

황선우는 16일 전남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선에서 참가 선수 중 가장 빠른 1분45초72 만에 터치페드를 찍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남자 일반부 계영 800m에서 대회 첫 금메달을 신고한 황선우는 이로써 2관왕에 올랐다. 황선우는 계영 400m(17일), 자유형 100m(18일), 혼계영 400m(19일)과 시범 경기로 치러지는 일반부 혼성 혼계영 400m(18일)에도 출전한다.

대회 개막 직전 식중독으로 탈수, 고열에 시달렸는데도 연일 역경을 펼쳐 보이며 5관왕 달성을 역대 최초 전국체전 3년 연속 MVP 수상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전남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황선우(강원도청, 가운데)가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역도에서는 신재경(평택시청)이 여자 일반부 49kg급에서 인상 80kg, 용상 102kg, 합계 182kg을 들어 올려 3관왕에 올랐다. 2019년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대회와 지난해 제103회 울산 대회에서 이 종목

서 3개 대회 연속 금메달 획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카약 간판 조광희(울산광역시청)는 전국체전 1인승 200m와 2인승 200m에서 모두 우승하며 2관왕에 올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씻어냈다.

조광희는 1인승 200m는 35초735의 기록을 냈고, 정유성과 함께 출전한 2인승 200m에서는 34초108을 기록했다.

육상에서는 '고교생 토르' 박시훈(금오고)이 올해 두 번째로 포획된지기 남자 고등부(6kg) 한국 기록을 내며 우승했다.

박시훈은 결선에서 19m28을 던져 우승했는데, 이는 불과 4개월 전 경북 예천에서 열린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수립한 남자 고등부 한국 기록 18m70을 무려 58cm나 늘린 것이다.

한국 초등부(3kg·19m17)와 중등부(4kg·22m53) 기록을 보유한 박시훈은 올해 고등부 기록을 2번이나 경신하며 '괴력을' 과시하고 있다. / 박자석 기자



여자부 팀전에서 우승한 한국 볼링대표팀

## 한국 볼링대표팀,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금메달 4개 수확

한국 볼링 대표팀이 2023 국제볼링연맹(IB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합 금메달 4개를 수확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정다운(대전광역시청), 가윤미(용인시청), 김형미(곡성군청), 백승자(구미시청), 홍해니(서울시청)로 꾸린 여자팀은 15일(현지시간) 쿠웨이트의 쿠웨이트 볼링 스포츠 클럽에서 열린 대회 5인조 팀전 결승에서 말레이시아 팀을 라운드 점수 2-1(211-177 169-207 214-203)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인 엔트리로 구성한 여자 대표팀에서는 손혜린(평택시청)이 결승에 나서지 않았다. 김경민, 오병준(이상 인천교통공사), 김동현, 백승민(이상 광양시청), 박경록(율주군청), 원종혁(성남시청)으로 꾸려진 남자 대표팀은 같은 날 은메달을 땄다. 김동현을 빼고 나선 5인조 팀전 결승

## 시즌 마친 류현진 18일 귀국 내년 FA 계약 및 훈련 준비



로 426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다.

빠른 볼 구속은 기대만큼 올라오지 않았으나 류현진은 시속 100km대 느린 커브와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3개 구종과 정확한 제구를 앞세워 성공적인 복귀 시즌을 마쳤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11경기

에 등판해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을 올린 류현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와일드카드 로스터에서는 제외됐으며, 토론토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미네소타 트윈스에 2연패로 일찌 탈락하면서 류현진의 한 해도 마무리됐다.

토론토와 4년간 8천만달러에 계약한 류현진의 계약도 올해 끝났다.

류현진이 계약 만료로 토론토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 언론은 베테랑 류현진에게 1~2년 계약을 제

시할 빅리그 구단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신승진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1·2차 월드컵 열리는 캐나다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2023-2024 시즌 첫 국제대회에 출격한다. 대표팀은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가 열리는 캐나다 몬트리올로 떠났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20일부터 22일까지 월드컵 1차 대회에 출전한 뒤 27일부터 2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월드컵 2차 대회,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 퀘벡주 라발에서 열리는 ISU 4대륙선수권 대회까지 치르고 귀국할 예정이다.

새 시즌 월드컵은 내년 2월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리는 대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 중 4차 대회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열려 관심을 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지난 4월에 열린 대표선발전 결과에 따라 박지원(서울

시청), 황대현(강원도청), 김건우(스포츠토토), 서이라(화성시청), 장성우(고려대), 이정민(한국체대), 김태성(단국대), 이준서(성남시청)로 구성됐다.

여자 대표팀은 김길리(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박지원(전북도청), 김아랑(고양시청), 이소연(스포츠토토), 박지윤(의정부시청), 서휘민(고려대), 이유빈(의정부시청)이 승선했다.

그동안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했던 최민정(성남시청)은 새 장비 적응과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이번 시즌 대표팀 활동을 하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남자 대표팀 뒷순위로 뽑힌 김태성과 이준서, 여자 대표팀 이유빈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 황순길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2023시즌을 마친 류현진(36)이 18일 귀국한다.

류현진의 에이전시인 에이스펙코퍼레이션은 류현진이 18일 귀국하며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년과 달리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16일 전했다.

지난해 왼쪽 팔꿈치 인대를 접합하는 수술을 하고 1년 넘게 재활한 류현진은 지난 8월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

했다. / 신승진 기자

프로야구 KIA, 포수 김태군과 3년 총액 25억원에 계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공수를 겸비한 포수 김태군(34)과 디펜 계약했다.

KIA 구단은 16일 김태군과 계약 기간 3년에 연봉 20억원, 옵션 5억원을 합쳐 25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내야수 뮤지혁과 맞트레이드로 삼성 라이온즈에서 호랑이 굴로 들어온 김태군은 프로 15시즌 동안 타율 0.248, 홈런 25개, 타점 301개에 도루 저지율 0.294를 기록 중이다. 김태군은 구단을 통해 "KIA 타이거즈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즌 중간에 합류했는데도 저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신 KIA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참 선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며 동료 선수들과 힘을 합쳐 KIA에 큰 보탬이 되겠다"며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보답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조규돈 기자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 '가왕' 조용필, 연말 전국투어로 데뷔 55주년 마무리

서울·부산·대구·광주서 콘서트

올해로 데뷔 55주년을 맞은 '가왕'(歌王) 조용필이 오는 12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도는 전국투어 콘서트로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한다.

16일 인터파크와 예스24에 따르면 조용필은 12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을 시작으로 9~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16일 대구 엑스코 서관, 23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3 조용필 & 위대한탄생 전국투어 콘서트'를 연다.

조용필은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올해 5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김트리오, 조용필과 그림자 등 밴드를 거쳐 솔로로 나섰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히트한 것을 시작으로



4년 만의 단독 콘서트 연 조용필

1980년 '청백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스타 반열

에 올랐다.

그는 이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최초 누적 앨범 1천만장 돌파, 일본 내 한국 가수 최초 단일 앨범 100만장 돌파,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공연 등 무수한 기록을 세웠다.

조용필은 콘서트 때마다 그의 밴드 위대한탄생과 함께 '완벽'에 가까운 음향과 라이브를 고집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도 세심한 연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데뷔 55주년에도 국내 텁스타만 설 수 있다는 잠실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정도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조용필은 현재 정규 20집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20집 선공개 싱글 '로드 투 20 - 프렐리드 1·2'를 발표한 바 있다.

/ 오영찬 기자



## 피프티피프티 키나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취하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중 한 명이 원소속사인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법적 분쟁을 일단 멈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는 이날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항고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올해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키나를 비롯한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 멤버 전원이 항고한 상태였다. 항고심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고 글로벌 대형 음반사 워너와 유통 계약을 맺으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 조규현 기자

## '미우새' '놀토' 임영웅 출연에 잇달아 자체 최고시청률



가수 임영웅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종전보다 급등한 시청률로 올해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4일 tvN이 방송한 '놀라운 토요일'은 시청률 3.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직전 회차의 시청률(1.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임영웅은 이날 '놀라운 토요일'에 단독 게스트로 출연해 "놀토"(놀라운 토요일)

는 늘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라며 "붐 형님이 있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MC 블라우스를 펼쳤다.

임영웅은 이달 9일 새 디지털 싱글 '두

오어 다이'(Do or Die)를 발매했다. 이번

신곡은 발매 직후 멜론의 '톱 100' 차트 1

위에 올랐다.

/ 강희준 기자

## '개그콘서트' VIP 시사회, 윤형빈 전신 금칠 "웃으실 일만 남았다"

'개그콘서트'가 VIP 시사회를 개최하고 안방 컴백 준비를 마쳤다.

지난 15일 서울 흥대 윤형빈소극장에서는 KBS2 예능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의 VIP 시사회가 열렸다.

'개콘' VIP 시사회는 포토존부터 색 달랐다. 다채로운 스타일링으로 '개콘' VIP 시사회를 밝힌 셀럽들, 특히 윤형빈이 전신에 금칠을 하고 포토존 옆에서 트로피처럼 포즈를 취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VIP 시사회에선 오는 11월 12일 KBS2를 통해 시청자들과 다시 만날

'개콘'의 주요 코너들이 공개됐다. '금 쪽 유치원'부터 '대한결혼만세'까지 '개콘'의 크루들과 제작진이 염려한 10개의 코너를 직접 셀럽들 앞에서 선보였다.

시사회가 열린 윤형빈소극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으로 가득했다. 특히 박성호, 정태호, 정병균, 송영길, 정찬민, 신윤승 등 '개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배 개그맨들과 흥현호, 김시우,

임선양, 임슬기, 오정을 등 패기로 뜰뜰



봉친 후배 개그맨들이 힘을 합쳐 트렌디하면서도 전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코너들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상미 CP는 "'개콘'을 사랑해 주는 셀럽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기쁘다"라며 "이제 '웃으실 일'만 남았다. 대한민국 코미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개콘' 크루들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그콘서트'는 오는 11월 1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25분 KBS2에서 시청자들과 만난다.

/ 홍지민 기자

## 문채원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합의나 선처 없을 것"



배우 문채원이 악성 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 12명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채원이 스태프에 막말했고, 비위생적이어서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등의 의혹이 유포됐다.

/ 권유희 기자

##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승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함께하는  
100년 농협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의 30% 상당 달려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gt;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축협

\*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제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가까운 롯데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 하이메이드를 만나보세요

“롯데하이마트가 만든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상품”

하이메이드  
FHD TV(100cm)  
HMDT40C2FB  
믿을 수 있는 국내 제조 TV  
최 종 349,000원  
특별가 349,000원

하이메이드  
안마의자  
HM-8661B  
12가지 자동모드  
3D 안마의자  
최 종 1,990,000원  
특별가 1,990,000원

하이메이드  
무선 진동 마사지건  
HMG-JE3000P  
5가지 강도조절 가능  
최 종 99,000원  
특별가 99,000원

하이메이드  
안마의자 리프  
HM-X6000(G)  
24가지 자동모드  
4D 안마의자  
최 종 4,280,000원  
특별가 4,280,000원

하이메이드  
식품건조기(5단)  
HFD-LQ530W  
국내 제조  
5단 온풍 대류형 식품 건조기  
최 종 109,000원  
특별가 109,000원

하이메이드  
대형 잔치판(53cm)  
HEP-DN530B  
국내 제조  
4중 코팅 뚜껑형 잔치판  
최 종 69,900원  
특별가 69,900원

하이메이드  
대형 그릴(55cm)  
HEG-DN550B  
국내 제조  
돌판 코팅 고기 그릴  
최 종 69,900원  
특별가 69,900원

하이메이드  
대용량 믹서(3L)  
HBL-NAC300BE  
국내 제조 대형 믹서  
포스코 스테인리스 용기  
최 종 109,000원  
특별가 109,000원

하이메이드  
IH 압력밥솥(10인용)  
CRM-HUF1080UHM  
하이메이드 X 쿠쿠 풀리보  
최 종 259,000원  
특별가 259,000원

하이메이드  
고급을 전자레인지(25L)  
HMW-ME25B  
25L 대용량, 800W 고출력  
최 종 109,000원  
특별가 109,000원

HIMADE Made by 롯데하이마트

※ 행사가격은 당사 시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